

자치구탐방

■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경림(성북구 기획재정국장)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경림

성북구청 기획재정국장

yklam@seongbuk.go.kr

성북의 지역 특성 및 개발여건

○ 지역 특성

- 성북구는 서울 성곽과 성북천·정릉천의 풍부한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보급 유·무형문화재와 10개 대학이 소재한 역사·문화·교육 중심도시이며, 서울 도심과 동북 지역을 잇는 전략축 상에 입지한 중심도시로 현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역동적인 발전도시임



〈그림 1〉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

- 과거 성북은 불량주택이 다수를 차지하여 ‘성북’ 하면 무허가 달동네의 이미지가 떠올랐고, 강남의 도시화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지역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이 정체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활불편이

가중되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음

- 성북구는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변한 상업지역조차 없어,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발전이 뒤쳐져 있음
- 이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결 방안으로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함

지역경제 성장속 지속 개발



〈그림 2〉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개념도

○ 편리한 교통 및 주거환경 조성

- 성북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2010 성북 Vision」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월곡역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하고, 길음·월곡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등 상업 지역개발인프라(Infra)를 확충하고 월계로를 확장하며, “우이~정릉” 간 지하 경전철 건설, 지하철 분당선 연장 광역화 추진 등의 교통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음
- 길음·정릉뉴타운, 장위뉴타운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그림 3〉 월곡동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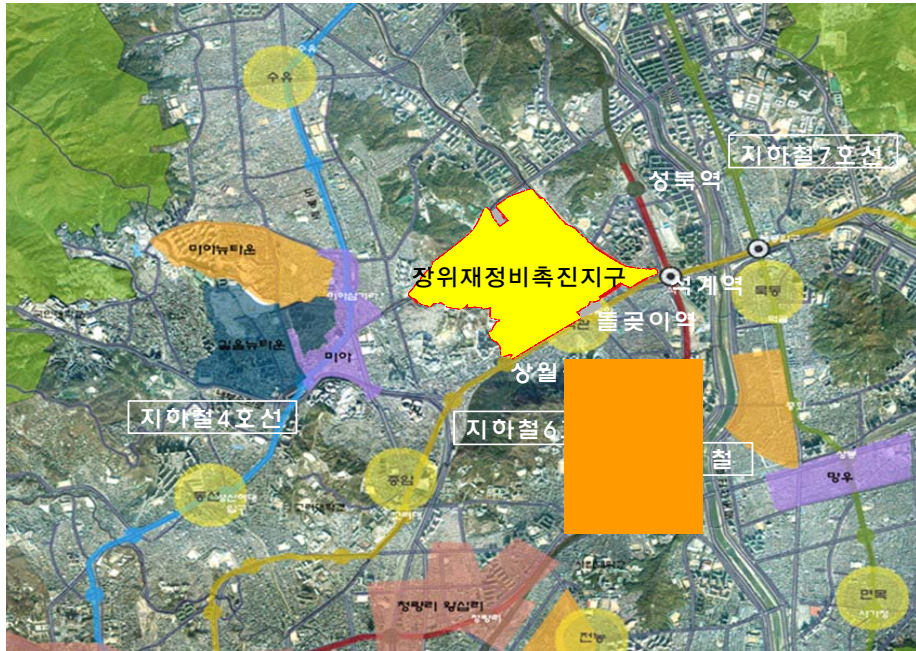


〈그림 4〉 길음뉴타운

- 성북은 도시환경의 노후화와 장기간의 개발 정체로 인해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먼저 성북을 서울 동북권의 핵심도시이자 강남·북 균형발전의 선도적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뉴타운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길음·정릉 뉴타운」사업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커뮤니티센터, 보건복합센터 등의 공공시설 건립 등이 진행되어 “고품격 복지 주거 공간”으로 변신중이고, 현재 「장위 뉴타운」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여유 있는 기반시설과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주거 단지”로 변모할 것임



〈그림 5〉 길음 뉴타운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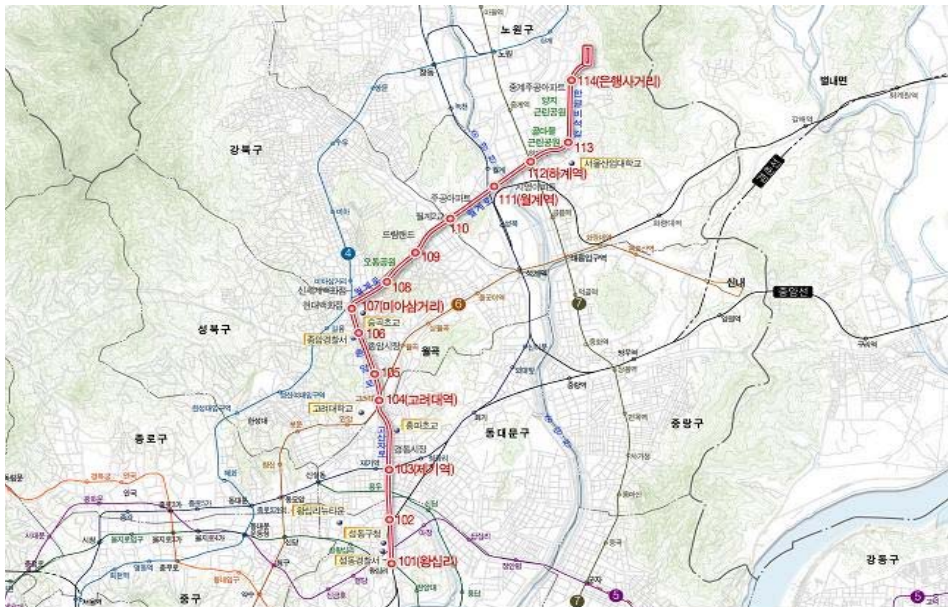
〈그림 6〉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위치도

- 또한 「월곡·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를 40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건설을 통해 2008년까지 상업·업무·문화·주거가 어우러진 21C형 거점 도시로 개발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미아리성매매집결지가 정비되어 이 지역은 서울 동북권지역의 허브로 탈바꿈할 것임



<그림 7> 길음·월곡 균형발전 촉진지구

- 성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생활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도심 을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성북 발전의 저해 요인이었던 열악한 도로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의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에 따른 신교통수단의 도입, 주변지역과의 교통 연계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교통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정릉권역의 만성적인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우이동 유원지에서 미아동, 정릉동, 신설동에 이르는 총 10.7km 구간에 이르는 「우이~정릉 간 경전철 건설」은 교통난 해소는 물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이와 더불어 장위동 지역 뉴타운 건설 등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분당선 2차구간인 선릉~왕십리 노선을 동북권으로 약 12km 연장하는 동북선 지하경전철을 유치하였음
- 이 노선이 개통되면 동북권과 강남·분당을 연결하는 광역지하철로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교통여건이 취약한 5개구 220만명에게 직·간접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8〉 동북선 지하경전철 예상 노선도

- 또한 미아사거리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강북·도봉지역의 도심과 내부 순환로 진·출입 차량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보국문길 확장 공사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음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건설

- 성북은 북한산, 성북천, 정릉천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도시미관의 창조적 연출을 통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음
- 먼저 북한산에 흘러내려오는 깨끗한 물줄기를 성북천과 정릉천에서 볼 수 있도록 「성북천복원화사업」을 추진 중임



〈그림 9〉 성북천 복원화 사업

- 복원 사업은 구간별로 지역특성을 살려서 3색 「테마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구간을 완료하고 3단계 구간이 진행 중에 있음
- 「정릉천복원화사업」도 올해 건물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08년까지 자연생태 보존기능과 친수기능을 갖춘 친환경하천으로 복원하고, 생태학습장과 주민휴식공간을 두루 갖춘 주민편의공간으로 제공될 것임
- 삼선동 한성대후문~동소문로 지역에 이르는 낙산근린공원 지역은 이미 공원이 조성된 종로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1960년대에 건축된 노후 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09년까지 낙산의 옛 모습을 복원하고 성곽과 조화로운 새로운 녹지,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 날 것임



〈그림 10〉 낙산근린공원 위치도

○ 지역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 한편 KIST·고려·국민·한성대 등 연구시설 및 다수의 대학 시설이 소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관내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트리즘(Trizm)을 개발·운영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 중소기업 사이버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03년 길음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돈암 제일시장의 환경개선 및 6개시장 재건축사업을 통한 「시장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구 자체 육성기금과 서울시 특별지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취업 정보은행 운영», 「Job Festival」 등을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의 건설

- 성북구는 서울성곽, 정릉, 삼청각, 성락원, 길상사 등 전통 문화 유산과 아리랑시네

센터, 간송미술관, 한국가구박물관 등 민간문화시설이 있는 전통과 문화의 고장으로, 이와 같은 장점을 최대한 살려 관광과 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성신여대 하나로 젊음의 거리 특화, 성북의 대표적 문화축제인 성북 아리랑 축제, 세계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문화체험 시스템인 성북동을 중심으로 글



〈그림 11〉 서울성곽 야간조명 설치

로벌 시대를 향한 국제적 문화랜드마크(landmark) 조성, 문화유적 탐방, 서울성곽 역사 탐방로 등 관광인프라자원벨트 프로젝트, 이리랑길 영화의 거리 조성 등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향후 발전 방향

- 강남·북 균형발전의 선도적 중심축으로 꿈과 행복이 넘치는 최고의 도시를 만들고자 함
- 이를 위해 구정목표를 「편리한 성북」, 「투명한 성북」, 「균형잡힌 성북」으로 정하고 「2010 성북 Vision」을 수립하여 현재 활발히 시행중에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들의 상호 상관관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임